

영성이 있는 일터 : Workplace Spirituality

“일 속에서 삶의 목적과 존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며,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질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과거 우리가 접했던 문제들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거나 아예 답이 없을 수도 있다. 오늘날 기업들에게 주어진 역동적인 환경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의 연속이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친 짓”일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을 탐구하는 행동과학자들은 10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영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꽤 진전된 연구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과거의 통제적, 선형적 방식으로는 접근의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개인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홀리스틱(hollistic)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과 조직운영의 관점에서 일터영성(Workplace Spirituality)을 고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접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의 어원은 라틴어의 ‘spiritus(호흡)’에서 유래하였다. 영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지만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고 유지시키는 근원이라는 의미이다. 영성의 정의는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존재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연적 심리적 속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존재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성은 종교적 틀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존재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특성은 하나의 조직화된 신념체계(organized belief system)이며 형식과 틀을 중요시하는 반면, 영성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속성이다. 비유를 들자면 영성은 마치 어디든 존재하는 ‘물’과 같은 것이며, 종교는 물을 담는 ‘용기(container)’에 비유할 수 있다. 용기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가 있을 수 있지만,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기(container)’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조직이라는 환경 속에서 보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출근을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집에 놔두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 속에서 삶의 목적과 존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며,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질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영성이 있는 일터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場)인 것이다.

We Serve The Global Success !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니라!” - 증산 법륜



James Roh

